



보도자료

퓨어스토리지, 미래에셋증권에 올-플래시 어레이 공급

국내 최초로 VDI(데스크탑가상화)환경의 운영체제 및 데이터 영역 전체에 올-플래시 어레이 구축

2015년 11월 16일 – 올-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시장을 선도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어레이(SSA) 전문기업인 퓨어스토리지(www.purestorage.co.kr, 지사장 강민우)는 미래에셋증권(www.smartmiraasset.com, 대표이사 조웅기, 변재상)에 자사의 대표적인 올-플래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어레이인 '퓨어스토리지 FA-420'을 공급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VDI(데스크탑 가상화) 환경의 운영체제 및 데이터 영역 전체에 올-플래시 어레이를 구축한 프로젝트로, 퓨어스토리지는 국내 고객사 보유수, 뛰어난 중복제거 및 압축 기술을 통한 비용절감효과, 안정성 및 관리편의성 면에서 인정받아 미래에셋증권의 스토리지 공급사로 선정됐다.

최근 많은 기업들이 스토리지 성능, 확장성 및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 이번에 미래에셋증권에 공급한 '퓨어스토리지 FA-420'은 10 배 이상 빠르고, 10 배 이상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며, 10 배 이상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올-플래시 스토리지 제품이다.

퓨어스토리지 강민우 지사장은 "국내 최초로 VDI 환경의 운영체제 및 데이터 전체를 올-플래시 어레이에서 구현하게 되는 이번 프로젝트에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가 채택됨으로서 퓨어스토리지의 높은 기술력을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서 검증 받게 됐다"며 "이를 계기로 퓨어스토리지는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IT 환경에서 올-플래시 스토리지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 확산에 더욱 주력할 것"이라고 전했다.

한편, 이번 미래에셋증권의 운영체제 및 데이터용 스토리지 구축은 퓨어스토리지의 국내 영업 및 기술지원 파트너인 이액티브(<http://www.eactive.co.kr>, 대표이사 이정훈)가 2015년 4월부터 진행했다.

###

퓨어스토리지에 대하여

퓨어스토리지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며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다. 고객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퓨어스토리지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 기술은 낮은 비용으로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고객의 비즈니스 및 IT를 변화시킨다.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//m은 데이터센터 내 다른 어떤 기술보다 간단하고 빠르며 우수하다. 또한, 플래시어레이//m은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, 데이터베이스 시스템, 데스크톱 가상화, 실시간 분석 및 서버 가상화와 같은 성능 집약적 워크로드에 적합하다. 퓨어스토리지는 고객 만족도를 산업 표준 지표로 측정하는 성공 지수인



NPS에서 79점을 받으며 업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.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공급업체, 소비자 웹, 교육, 에너지, 금융 서비스, 정부, 의료, 제조, 미디어, 소매 및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퓨어스토리지의 고객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고객들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. 앞으로도 퓨어스토리지는 고객의 보다 빠르고, 지능적이며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보도자료 문의 연락처

민커뮤니케이션

김준경 이사 / 오주연 대리

02-3495-7824 / 010-9261-8645

itpr2@mincomm.com